청주주보
| 제2451호 | 2024년 11월 10일

연중 제32주일 나해

평신도 주일

신앙선조들의 열정과 사랑을 이어가는 교구공동체의 해

성 손선지 베드로(1819-1866)

Son Sonji

'승운'이라고도 불렸던 손선지는 충청도 임천의 '괴인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성품이 온순하고 착해 16세 때 정(샤스탕) 신부에게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순교할 때까지 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병인박해 때 그는 전주 지역의 교우촌인 대성동 신리에 살면서 자신의 집을 공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2월 5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정문호, 한재권 등과 함께 전주 감영 후면옥에 갇혔다. 신문을 받다가 회장 신분이 탄로나, 관장에게 공소를 거쳐 간 서양 신부들의 이름과 교회 서적의 출처를 대라고 강요당하며 매우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손선지는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체포된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다가, 12월 13일 5명의 교우와 함께 숲정이에서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47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받았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97
(시편 144,15)

소장처 _ 절두산 순교 성지(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피어라, 신앙의 꽃)」 성인화 · 약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제 1 독 서	1열왕 17,10-16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 서	히브 9,24-2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르 12,38-44
영 성 체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발행 | 천주교 청주교구 전산홍보실 | (28337)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 전화 | 043-210-1760 | 전자우편 | hongbo@cdcj.or.kr | www.cdcj.or.kr

말씀 중심의 삶

희년을 기다리며

김경환
가브리엘
교구 평협회장

올해의 여름은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힘들 정도로 열대야가 지속되는 나날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많은 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지구의 공동 상속자인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50년마다 정기 희년을 갖도록 되어 있지만 1470년 교황 바오로 2세께서는 희년을 25년마다 개최해야 한다고 선언하심에 따라 2025년을 정기 희년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게 되며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레위기 25, 10~12). 그동안 가난으로 팔아야만 했던 땅을 되돌려 주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느님의 명령이셨으니, 희년은 가난한 이들과 묶인 이들, 즉 약자들을 되살리시고 인권을 되찾아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해이고, 희년 정신을 실천함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를 앞당기는 거룩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어릴 적에 했던 땅따먹기 놀이를 예로 들어, 지구촌이라는 유한한 세상에서 내가 남의 땅을 따먹어 가면 나의 상대는 땅을 잃어가며 쫓겨 가듯이, 내가 필요 이상으로 누리는 것, 과용하는 것, 쉽게 버리는 음식 때문에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굶주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와 자연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라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이웃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말없는 저항에 귀를 기울이는 희년이 되어야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각자의 일상 안에서 실천이 가능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5R, Bea Johnson) – 일회용품 거절하기 (Refuse), 사용량 줄이기(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썩히기(Rot) –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마르 12,43).

'가난한 과부의 헌금',
프랑수아 조제프 나베 作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호교적 대화 21 천주교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 젖어 있는 타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위하여 가상 대화 형식으로 꾸몄으며, 주로 서한규의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서울, 게쎄마니, 2012)를 참고하였다.

마리아 공경에 대하여 ❷

비 신 자 : 그러면 성인들과 마리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천주교인 : 국가의 존경받는 많은 애국자 중에도 더 높은 존경을 받는 분들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성인 성녀 중에도 더 높은 존경을 받는 분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바로 성모 마리아는 성인 성녀 중에 가장 높은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에게는 공경지례恭敬之禮를 드리는데, 성모 마리아에게는 상경지례上敬之禮를 드린다고 해요. 즉 가장 높은 공경이지요.

비 신 자 : 그러면 하느님과도 다르겠네요?

천주교인 : 물론이지요. 창조된 이가 어떻게 창조하신 이와 같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지요. 만일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처럼 흠숭欽崇한다면 이는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단입니다. 존경의 대상과 흠숭지례欽崇之禮 대상(하느님) 간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이 크지요.

비 신 자 : 그러면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주교인 : 개신교 신자들도 무언가 간절히 청할 것이 있을 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지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더 효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천주교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한 성인 성녀들은 틀림없이 하느님 곁에 있을 것이니, 그분들에게 부탁드리면,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더 채워서 하느님께 올려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 신 자 : 성모 마리아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군요?

천주교인 : 예 그렇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사정을 더 잘 아시기에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히 채워서 하느님께 전달해 드리지 않겠어요?

비 신 자 : 그러면 기도의 내용에 차이가 있겠군요?

천주교인 : 당연하지요. 하느님께는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성인 성녀들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성인 성녀들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잘 전달해 주십시오.' 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비 신 자 :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군요!

천주교인 : 예 그렇지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기도문 끝에는 모두 '천주의 성모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맺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빌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지요.

이야기가 있는 탁자

위령 성월에는

정은오 요안나 / 시인 · 수필가, 교구 가톨릭문인회

내 가진 것 다 내어놓고 베옷 한 벌 입은 채 쓸쓸히 누워있는 차가운 저 죽음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온갖 시름 다 끝내놓고 질기디질긴 인연 다 벗어버린 자유스러움일까? 나는 그날이 주님의 정원으로 초대받는 날이 되고 싶다. 하얀 날개 달린 수호천사를 만나는 날이고 싶다. 이 세상 고행의 가시밭길을 정말 잘 살아 주었노라고 네가 눈물로 지고 온 십자가는 정말 예뻤노라고, 위로받는 날이 되고 싶다.

뒤돌아보면 짧기만 한 잠시 잠깐의 나그넷길인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도 영원을 살 것처럼 슬퍼하고 분노하고 사랑과 미움의, 물질과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일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으로 초대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승을 떠나 죽음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될까?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아니 그러한 애틋한 상념조차도 이승을 떠날 때는 헛된 미망이려니….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몸부림쳤다. 안으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 앞에서 그 두렵고 안타까운 순간은 주님과 그와 독대의 시간이었다. 누구도 개입해서 도와줄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게 하소서! 주님이 죄악을 살피신다면 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오스딩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고통에서 그를 구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소서!"

그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소리 소리 지르며 울며불며 기도했다. 주님께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느 순간 곁에 있던 시동생이 말했다.

"형수님, 형님 잠들었습니다. 그만 하소!" 그렇게 잠든 그가 고운 잠 속에서 하느님 곁으로 갔다. 9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바로 어제처럼 그날이 선명하다.

나는 한 점 욕심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말없이 겸손하고 정갈하게 그렇게 살아내고 싶다. 그러다 준비된 어느 날 내가 소유하고 있던 아끼고 아끼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맨발로 무릎을 꿇고 내 전 생애를 눈물로 회개하고 그레고리안 성가가 흐르는 천상의 꽃밭으로 잠깐 산책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훌쩍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연령을 위한 기도를 한다. "주여, 나 깊고 그윽한 곳에서 네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이 기도문이 이렇게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문이었구나!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느 한순간 그분이 부르시면 내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예'하고 떠나야 하는 허망한 풀잎 위의 이슬인 것을.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주님 부르시는 날 언제 어느 때이든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떠나고 싶다.

내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 11월 위령 성월, 성요셉 공원에서는 참 경건해지고 착해지는 시간이 된다.

청주어르신대학 성지순례

청주어르신대학(지도 _ 김병찬 베드로 신부)은 10월 7일(월) 멍에목 성지에서 성지순례를 실시하였다. 이날 성지순례에는 신앙 안에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교구 내 어르신 29명이 참석하였다.

구세주의 모친 레지아 산하 꼬미시움, 꾸리아 단장 연수

구세주의 모친 레지아(지도 _ 박규성 미카엘 신부)은 10월 19일(토)–20일(주일) 대전교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레지아 산하 꼬미시움, 꾸리아 단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직책교육, 질의응답, 활동사례발표, 조별 토의 및 발표, 성무일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의 주례로 파견미사가 봉헌되었다. 9개 꼬미씨움과 41개 꾸리아 단장 72명이 참석하였다.

청주교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 이야기

네믿음이장하다

출판기념
감사미사

• 일시 _ 11.27.수.11:00
• 장소 _ 배티성지 대성전
• 주례 _ 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
• 주관 _ 청주교구 가톨릭문인회

교구장 동정

■ **한일주교 교류모임**
일시 _ 11월 12일(화)–14일(목)
장소 _ 한국레지오마리애기념관

■ **중앙탑 본당 견진**
일시 _ 11월 15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_ 중앙탑 성당

■ **제3차 교구 사목평의회**
일시 _ 11월 16일(토) 오후 4시
장소 _ 교구청

■ **교구장 사목방문**
일시 _ 11월 17일(주일) 오전 10시
장소 _ 생극 성당

교구청

성소자 모임(예비신학교/여성수도성소자)
일시 _ 11.17.주일.10:00(고3/대학생/일반)
11.17.주일.13:30(중1–중3예신/여성)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50 성소국
※고1–2학년 11월 모임은 신학교 체험으로 대체되어 이번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영유아교육 '천사학교'
일시 _ 11.23까지 매주 토.10:30–12: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제32기 아버지학교
일시 _ 11.30.토.08:30–12.1.주일.15:30
장소 _ 엠마우스 피정의 집
대상 _ 65세 미만 아버지 선착순 30명
회비 _ 12만원
접수 _ 11.20까지 210–1733 가정사목국

미사 · 피정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1월 묵주기도 피정
일시 _ 11.11.월.09:00–12:30
장소 _ 서운동 성당

군종후원회 미사
일시 _ 11.11.월.10:0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성소를 위한 미사
일시 _ 11.11.월.10:3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청년성서모임 한처음 월미사
일시 _ 11.12.화.20: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봉암성지 철야기도회
일시 _ 11.15.금.19:00–16.토.02:00
장소 _ 맹동 성당
문의 _ 883–0161, 010–5215–8607

떼제 기도의 밤
일시 _ 11.15.금.20: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청주 생명수호미사
일시 _ 11.18.월.19:30(19:00부터 묵주기도)
장소 _ 사천동 성당 ※임신부와 태아축복예식
주례 _ 김영선 티모테오 신부

감사와 청원의 10주간 철야작정기도
일시 _ 12.20까지 매주 금.21:00–토.03:00
(11.29.금 제외)
장소 _ 초정 성령회관 ※미사, 성시간 있음
내용 _ 묵주기도, 기도, 강의, 안수, 찬양
문의 _ 010–5482–6744 회장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8박 9일 _ 11.14–22, 12.26–1.3
3박 4일 _ 11.28–12.1, 12.5–8
1박 2일 _ 12.21–22, 2.14–15
40일 _ 12.14–1.22
장소 _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_ 031–953–6932, 010–4906–5722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자연순례 _ 11.21–23, 12.6–8, 12.14–16
연말연시(한라산눈꽃산행) _ 12.29–1.1
한라산눈꽃산행 _ 1.11–13, 1.16–18
운영 _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_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접수 _ 064–796–4182, 02–773–1455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피정
성경완독 _ 12.6.금–14.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 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 예언서 Ⅱ _ 12.20.금–22.주일
문의 _ 010–3340–0201

교육 · 모집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회계교육
일시 _ 11.15.금.10:00
장소 _ 교구청

찾아가는 위령회 기본교육
일시 _ 11.17.주일.13:00
장소 _ 두촌 성당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김장김치 후원자 모집
내용 _ 가정제조 김장김치 10kg 이상(9–10쪽)
김장김치지원 후원금(5만원)
접수 _ 12.6까지 259–3331 청주노인복지센터

충주 오라클 피부과
여드름, 모공, 흉터, 색소, 기미, 잡티
일반피부질환, 건선, 백반증(엑시머)
피부과 전문의 윤정현(루카) | 845-6640~1
충주시 계명대로 28, 6 · 7층(칠금동)

제주,전국167곳 36만원 / 일본,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베트남,마카오,북해도,나가사키,아키타,도쿄,오사카 3박4일 120만원
과달루페성모님(멕시코)&마추피추(페루) 10박12일 720만원
마르코 투어 오완수 바오로 | 010-4239-1929

맘스토리 산후도우미 센터
정부지원 바우처 등록기관
산모 · 신생아 돌봄, 산후관리사 상시 모집
대표 지순의 아네스 | 010-9235-7786

보은 대추먹은 흑염소한마리
흑염소 분양, 흑염소 고기, 흑염소 엑기스
보은 황토 생대추, 건대추
김지환 요한 | 010-5833-6541

비와이씨 금천점
온 가족 언더웨어는 BYC와 함께!
란제리/잠옷/내의 가을신상 입하
강효숙 안젤라 | 902-1800
(금천동 롯데리아 옆)

백합혼수방, 백합한복대여
40년 전통 한복 디자이너 대상
24년 선물 증정 감사 이벤트
김하철 안드레아 김은정 에피파나 | 222-9922
중앙공원 맞은편 한복거리

알 림 란

청주가르멜재속회 지원자 모집
대상 _ 세례 3년이상 견진받은 55세 이하
문의 _ 010-4411-3991 회장

2025년 교구 꾸르실료 교육
여성 제92차 _ 1.9.목-12.주일
남성 제90차 _ 1.16.목-19.주일
장소 _ 교구 연수원
문의 _ 본당 울뜨레야 간사

충주가르멜재속회 지원자 모집
대상 _ 세례 3년이상 견진받은 55세 이하
장소 _ 충주 가르멜 수녀원
문의 _ 010-9026-3873
※첫모임 _ 12.15.주일.10:00

중앙탑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_ 세례 5년이상 워드,엑셀 가능한 여성신자
문의 _ 070-5150-9697

교구 연극단 단원 모집
대상 _ 교구 내 모든 신자
신청 _ cyh0279@hanmail.net 자기소개서 전송
(성명,세례명,나이,전화번호,본당,참가동기)
문의 _ 010-9406-0202 단장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_ 11.11.월-19.화.17:00
전공 _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 카리타스학
특전 _ 직장인, 수도자 등 장학혜택 다수
문의 _ 270-0131 ※방문 및 우편 접수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_ 수도자,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접소 _ 11.11.월-2.14.금
문의 _ 02-745-8339, ci.catholic.ac.kr

안내 · 기타

가톨릭청소년센터 고해성사
※11월은 없습니다.

교구 평협 월례회의
일시 _ 11.14.목.19:00
장소 _ 교구청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루도비코형제회
일시 _ 11.16.토.13: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청년성서모임 하반기 만남의 잔치
일시 _ 11.16.토.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공소사도직 회의
일시 _ 11.16.토.15:00
장소 _ 교구청

양업회(신학생 부모모임)
일시 _ 11.17.주일.14:00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안나형제회
일시 _ 11.17.주일.15:00
장소 _ 수동 성당

재속프란치스코회 진천보나벤뚜라형제회
일시 _ 11.17.주일.13:00
장소 _ 진천 성당

돌보는 이를 위한 돌봄음악회
일시 _ 11.20.수.19:00
장소 _ CJB미디어 센터
출연 _ 다니엘 린데만, 가수 이소정
교구 안젤루스도미니합창단
대상 _ 돌봄전문직, 돌봄을 실천하는 교구민
주관 _ 청주성모병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전석 무료(선착순), QR코드 예매

교구 안젤루스도미니×서울대교구 마니피캇합창단 교류 연주회(마니피캇어린이합창단 창단 30주년기념)
일시 _ 11.22.금.19:3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문의 _ 010-6496-5774 ※무료 공연

11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한티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_ 11.18.월-20.수(2박 3일)
장소 _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_ 25만원
강사 _ 류 에프렘 수사
문의 _ 010-6791-0071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 · 출판 · 광고, 성경필사용지 제작 · 판매

수도회 성소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1.16.토.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11.16.토.15:00	대전 목동 성당	010-7997-9416

지극정성 노인주간보호센터
65세이상 치매,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낮동안 보호
식사제공, 병원동행, 아침/저녁 차량제공
원장 김나경 안토니아 (모태안 산부인과 부근) | 232-9959 등급신청 : 상담지원

현 대 요 양 원
넓고 쾌적한 요양원 / 사창동 현대코아 7층
(넓은 거실, 생활실, 편한 주차공간 등)
김영준 요아킴 신희숙 마리아 김경태 바오로 | 010-5375-4263 263-3330

2025 마샘동행 성지순례
2월 8일-12일, 베트남 성모발현지, 150만원
3월 6일-9일, 홍콩/마카오, 150만원
박경동 마리노 흥덕구 무심서로 705 | 010-9427-1119

청주탑엔도내과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당일 검사 및 진료 가능/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굿샘빌딩 5층)
고선희 미카엘라 홍의실 로 사 | 715-7572

보나투어 성지순례
1/24 설연휴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725만원
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대표 김홍민 마태오 | 02-732-4578

민 안과 의원
라식 · 라섹수술, 20년, 길원장라섹
백내장, 쌍꺼풀, 특화수술 · 각종특수검사
원장 길병석(베드로) 원장 길소연(데레사) | 222-8080 지하상가 중간 신호등 북쪽